

## 수석보좌관회의

국가는 단일한 것이지만 일사분란과 획일주의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1: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 행위 자체는 인권위원회의 고유 업무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국가 기관들끼리 의견이 다른 것을 두고 엄청난 사고인 것처럼 보거나 또는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식의 관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는 단일한 것이지만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을 통해서 상호 견제하는 것이며 일사분란과 획일주의로 국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권의 분립으로 국민통합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협의의 정부소속 기관도 아니고 고도의 독립적 기구이며 내용상으로는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인권위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국가 외교안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가 빠뜨리기 쉬운 인권옹호 등을 하는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정부의 역할을 다 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